주간말씀묵상

"사랑의 지혜"
(룻기 3:1-5)

2019. 4. 7 (주) NO.14

_____교구 _____구역 성 명【 】 점 수 점

들어가는 말

누군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보았습니까? 한번 나누어 봅시다.

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니다. (룻 3:1-5)

1.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
2.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
3.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
4.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
5.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

1.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보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?(2절)

=>

2. 나오미는 룻을 '내 딸아'라고 부르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.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?(3,4절)

=>

3. 3~4절을 통해 룻을 시집보내려는 나오미의 계획이 나옵니다.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?(1절)

=>

4. 인생에 큰 슬픔을 겪은 자신을 봉양하기 위해 따라온 룻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감을 갖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?

=>

5. 나오미처럼 나도 최선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? 가정, 교회, 일터 및 내가 속한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. (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.)

=>

기도

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. 그 인애와 은총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. 나도 주님 닮은 모습 그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또 다른 이를 위해 책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